2018년도 박종근 박사 문고
학술논문 공모전

- 공모 주제 : 근대 한국과 동아시아에 대한 자유 주제
- 공모 분야 : 학문 전 분야
- 응모 자격
  - ·부산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 (석·박사 과정)
    - ※ 휴학생 응모 가능(수료생 및 졸업생 제외)
  - ·개인 및 공동 연구 가능 (공동 연구는 3인 이내)
  - ·모든 응모자는 공모 접수일 기준, 응모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함
- 접수 기간
  - ·2018년 5월 1일(화) ~ 9월 30일(일)
- 접수 방법
  - ·이메일 접수 : 논문 파일을 gihong@pusan.ac.kr로 전송
  - ·부산대학교 도서관 홈페이지(http://lib.pusan.ac.kr) 공지사항의 논문 공모 신청서 및 논문 작성 요령 참고
    - ※ 응모한 논문은 반환하지 않으며, 수상작에 대한 저작권은 부산대학교 도서관에 귀속
- 시상내역

구분	편수	상금	비고
대 상	1	200만원	부산대학교 총장 상장
최우수상	1	150만원	
우 수 상	1	100만원	

※『박종근 박사 문고』 자료를 활용한 논문에 대해 가산점 부여
※ 심사결과는 추후 공지 / 시상식 개최 예정 (2018년 11월)
※ 심사기준에 부합하는 응모 논문이 없을 경우 시상내용과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음

- 문의처
  - ·부산대학교 도서관 기획홍보팀 남기홍 (051-510-1309)

주관 : 부산대학교도서관 Pusan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후원 : 우파장학회

Newsletter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효원 iN 도서관

Vol. 42 2018. 06.

부산대학교도서관 Pusan National University Library

Vol. 42 2018. 06.

효원 in 도서관

Newsletter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도서관소식지

CONTENTS

04 **도서관 200% 이용하기** 개편된 홈페이지 200% 이용하기

08 **특집 기사** 도서관 고문헌자료실에서 소장중인 문화재

10 **사서추천도서** 부산대학교 도서관 사서 추천도서

12 **교수의 서재** 나의 서재를 공개합니다.

14 **아름다운 人터뷰** 전자자료이용박람회 및 신입생 도서관 이용 이벤트 참여자 인터뷰

16 **여기 issue** 남북관계에 관한 도서 및 영화

18 **통계로 보는 도서관** 단대별로 대출된 도서 Best 5

20 **#발견 #이곳** 금정구 내 작은 도서관

22 **시선집중**

23 **도서관 후원**

발행처 부산대학교도서관 **발행인** 이수상 **발행일** 2018. 06 .20
편집 정재훈, 전태경, 최덕수, 강승일 **주소**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전화 051-510-1810 **팩스** 051-513-9733 **이메일** wonbin9@pusan.ac.kr
홈페이지 http://lib.pusan.ac.kr **디자인** 디자인웍스 051-248-1513

〈효원 in 도서관〉은 도서관 블로그(http://lib.pusan.ac.kr/pnublog)에서도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NEW
homepage
lib.pusan.ac.kr

도서관 200% 이용하기

새롭게 바뀐 부산대학교 도서관 홈페이지 안내

부산대학교 도서관에서는 이용자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업그레이드된 스마트 도서관 정보시스템을 구축함과 더불어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이용자 중심의 더욱 더 편리한 구성으로 개편된 도서관 홈페이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한다.

이용자 편의를 반영한 홈페이지 디자인 및 일반 기능 개선

주요 기능 이미지 버튼 전면 배치
도서관에서 주로 이용하는 기능에 대해 아이콘화하여 메인페이지에 배치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최소한의 경로 이동을 통해 원하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다 더 편리한 자료검색 기능
복잡했던 기존의 자료 검색 메뉴를 간결하게 수정함으로써 첫 화면에서 다양한 학술자원에 대해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접근점을 마련하였다.

이미지 배너 및 공지사항 등 위치 변경
복잡하게 보였던 기존의 홈페이지에서 배너 및 공지사항, 도서관 일정 등의 기능들의 위치를 홈페이지 하단에 배치함으로써 이용자들이 보다 더 쉽게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가독성을 향상시켰다.

시스템 안정화 및 속도 개선
자료 검색 및 모바일 접속 시 안정화 및 접속 속도가 개선되었다. 또한 모바일에서도 PC와 동일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확대하여 이용자들의 사용편의성을 높였다.

그룹스터디룸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기능 개발
그룹스터디룸 신청 시 대표자가 구성원들의 학번을 입력하기만 하면 이용할 수 있던 기존 시스템과 달리 스터디룸의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하여 모든 구성원들이 그룹스터디룸 이용 신청 -> 승인 과정을 거쳐야만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북토크 기능 (오픈 준비중)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기능을 도서관에 적용하여 온라인 친구 맺기, 독서그룹 운영, 읽은 책에 대한 별점을 부여하는 등 책과 관련된 생각을 공유하는 서비스이다.

부산대학교 도서관은 지난 2018년 1월 18일부터 2월 7일까지 약 21일간 기존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세분화된 메뉴로 인한 가독성 부족, 인터페이스 개선 필요, 책과 관련된 다양한 부가 서비스 필요 등 만족도 조사 결과에 나온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홈페이지를 개편하였다.
하지만 도서관 홈페이지 개편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현재 도서관 사서들로 TFT를 구성,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홈페이지를 개편할 예정이다.

도서관 홈페이지와 관련된 문의 사항 또는 개편과 관련된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경우 전산지원팀 **(051-510-1817)**으로 문의하면 된다.

NEW homepage
lib.pusan.ac.kr

Make the best use of the Library

Guide to the **newly updated** PNU library

A completely new PNU library homepage goes live now with upgraded smart library information system. In this issue, we would like to show it to you, boasting its more user-friendly details.
(The library homepage in English is currently being prepared.)

More user-focused design and functions

Iconizing frequently used functions on the front page for your convenience

We always want to give you the most optimal minimized route to the functions you want to access. To that end, we have iconized several frequently-used major functions, putting them on the front page.

Way more convenient searching

We have done some searching menu simplification in order to provide access to a variety of academic sources on the front page with ease.

Modifications to image banners and notifications

We've added banners, a notice and a schedule of events to the lower part of the homepage. These changes allow you to explore it with ease, enhancing its readability

More stable and fast

With these updates, you can experience a more stable and faster connection speed while searching academic resources and accessing the homepage in a mobile environment

Introducing new function to prevent cheating in using group study room

The old reservation system was open to abuse, letting cheaters make a reservation by just putting borrowed group members' student IDs whose owners were not going to show up.
The new system, however, requires all group members' request and authorization, preventing abuses from happening.

Booktalk (under development)

The newly updated homepage embraces SNS, giving you access to a sharing site based on SNS that allows you to share your thoughts on books you have read, to rate them, to make online-friends and to run reading groups

We carried out a user satisfaction survey on the old homepage for 21days, from 18th January to 7th February 2018.
The homepage has been revised to reflect the opinions received in the satisfaction survey, such as the lack of readability due to the subdivided menu, the need for interface improvement, and various supplementary services related to the book.
this work has not finished yet. the librarians have created a TFT and continue to reorganize the websites for the convenience of users.

If you have any inquiries about the homepage and ideas for updating, feel free to contact 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s Team Tel. **051-510-1817**.
PNU library is here to support you as always.

문화재는 박물관에만 있다? NO! 도서관에도 있다!

부산대학교 도서관 고문헌 자료실 소장 문화재 대공개!

흔히들 문화재라고 하면 박물관에만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문화재는 생각보다 여러분 가까이에 있다.
이번 호에서는 부산대학교 도서관 고문헌자료실에서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를 소개하고자 한다.

목장지도 1책
보물 제 1595-2호(2008.12.22.지정)

전국 목장 138개소의 실태를 그림으로 보여준
목장지도 (牧場地圖) 필사본(1678년)

목장지도는 문화재청이 보물(제1595-2호)로 지정(2008.12.22)한 우리의 옛 지도이다. 사복시(司僕寺)가 국가의 중대한 마정(馬政)의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전국의 감목관에게 명하여 목장의 실태를 그림과 지리적 지식을 보고하게 하여 이를 토대로 정리 편찬한 것으로 역사적 가치가 높으며, 회화사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목장지도는 표지 1면과 본문 36면, 후서 6면 등 모두 43면으로 구성되었으며, 한 본은 국립중앙도서관에, 다른 한 본은 부산대 도서관에 소장중이다.

삼강행실도 2책
부산시 문화재자료 제 71호(2013 10. 23. 지정)

조선의 도덕 교과서
삼강행실도 (三綱行實圖) 목판본(1581년)

삼강행실도는 부산광역시 문화재자료(제71호, 2013.10.23)로 지정된 자료이다.세종의 명에 의해 간행된『삼강행실도』는『이륜행실도(二倫行實圖)』,『속삼강행실도』,『동국신속삼강행실도(東國新續三綱行實圖)』,『오륜행실도(五倫行實圖)』등과 함께 전 백성을 대상으로 한 조선시대의 윤리도덕 교과서이며, 그 중 가장 먼저 편찬 간행되었을 뿐 아니라 가장 많이 읽힌 책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언해본『삼강행실도』는 1책으로 장정되어 있는데 비해 부산대 소장『삼강행실도』는 2책으로 분장되어 있으며, 책1에는 서문과 충신도(忠臣圖), 책2에는 효자도(孝子圖)와 열녀도(烈女圖)가 수록되어 있다.

거제선생안 2책
부산시 문화재자료 제81호(2014. 11. 26. 지정)

거제 지역의 역대 수령이름 등을 기록한
거제선생안 (巨濟先生案) 필사본(16세게 전반~1907년)

거제선생안은 부산광역시 문화재자료(제81호, 2014.11.26)로 지정된 자료이다. 이 선생안은 거제도 지역에 재임한 역대의 수령을 순차적으로 추가하여 기록한 누가식(累加式) 필사본 2책으로, 16세기 전반기부터 1907년까지 재임한 수령들의 관계(官階), 임명·부임·교체 시기, 이임 사유 등 거제도 지역의 역사·문화적 정보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아울러 부산대 도서관 거제선생안 필사본은 현존하는 유일본으로 희소성에서도 높은 상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한중일관계사료초 82책
부산시 문화재자료 제82호(2015.03.18. 지정)

조선과 중국, 일본의 역사자료를 발췌하여 기록한 사료
한중일관계사료초 (韓中日關係史料抄) 필사본(1926~1927년)

한중일관계사료초(韓中日關係史料抄) 19종 82책은 부산광역시 문화재자료 제82호로 지정(2015.3.18.)된 자료이다. 이 책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조선사편수회에서 작성(1926~1927년)한 자료이다.이 자료집은 조선사편수회에서 한국사 및 한일관계 또는 한중·중일관계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기존의 사서를 발췌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사료적 가치는 높지 않으나,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산하 조선사편수회의 주도로 한일관계사는 물론이고 한국사 및 일본사 정리 및 왜곡 과정에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많아 1900년대 초 일본 주도의 한국사 연구 실체를 보여주는 자료이다.

설뫼탐진안씨분재기 4점
부산시 유형문화재 제 177호(2016. 11. 23. 지정)

조선시대의 재산의 상속과 분배를 알 수 있는
설뫼탐진안씨분재기 (立山耽津安氏分財記) 필사본(1650~1784년)

설뫼탐진안씨분재기(立山耽津安氏分財記) 4점은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77호로 지정된 자료이다. 이 분재기란 재산을 나누어 주면서 그 내력을 기록한 문서로서 재산의 주인이 자녀를 비롯한 가족에게 재산을 상속하거나 분배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조선시대 재산의 상속과 분배가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소상하게 알 수 있는 기록물로, 사료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동여지도 22첩)
부산시 유형문화재
제 188호
(2018.01.31. 지정)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의 지도
대동여지도 (大東輿地圖) 가채목판본(1861년)

대동여지도는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88호로 지정된 자료이다. 이 자료는 조선시대 실학자 겸 지리학자인 고산자(高山子) 김정호에 의해 제작되었으며, 부산대 도서관이 소장한 대동여지도의 제1첩에는 표제와 간기, 방안축척표, 지도표, 지도유설, 도성도, 경조오부도 등이 실려 있고, 제2첩의 9~10면에는 지도가 그려진 사이의 공면이 되는데 이 두면에 전국행정통계표가 쓰여있다. 제3첩부터 22첩까지는 지도로만 이뤄져있다. 이 지도를 펼쳐서 이어 붙이면 전체 지도의 크기는 6.7 X 3.8m이다.

의령 금란계안 12책
부산시 유형문화재 제 181호(2018. 03. 27. 지정)

조선시대 마을 유지들이 자치조직 규정을 기록한
의령 금란계안 (宜寧 金蘭稧案) 필사본(1929~1971년)

의령 금란계안 12책은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자료이다. 의령 금란계안은 2017년 12월 경남 의령군 부림면 입산리 순흥안씨 탐진군파 헌납공 문중 대표가 부산대학교 도서관에 기증한 자료로서 1629년 의령군 부림면 입산리 인근마을 유지 22명이 만든 마을 자치규정이다. 17세기 초기부터 20세기까지 의령군 부림면 지역에서 시행된 동약을 기록한 동안의 필사 원본을 모아 엮은 선장본이다. 보존 상태가 양호해 다양한 종이 종류의 제작 기술과 공급 형태, 서체 등을 진단할 수 있는 원천자료로 서지학적 가치를 지닌다.

문화재 원문 이용 방법

부산대학교 도서관 홈페이지 ▶ 소장자료 검색
▶ 해당검색 결과에서 URL 클릭 ▶ 원문뷰어 프로그램 (ezPDF Reader 3.0) 다운로드 설치 후 열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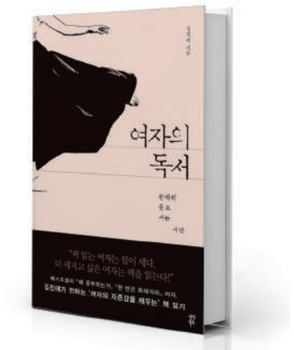
예
大東輿地圖, 帖1-22 / 金正浩 著 [刊寫者未詳] , 1861.
중앙도서관 [UMO 2-11 42] 열람가능
URL

PNUL
사서추천도서

효원인과 함께 공감하고 싶은 도서

부산대학교 도서관 "사서 추천 도서"

도서관에서는 매주 1권씩 "사서 추천 도서"를 선정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사서들이 직접 책을 읽고 추천한 아래 4권의 도서들을 통해 책으로 더하는 감동을 효원인과 함께 느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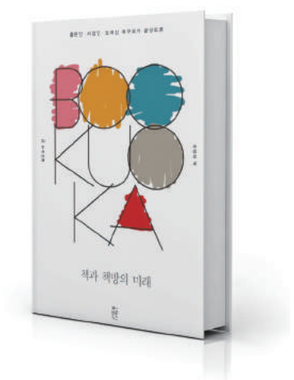


여자의 독서

김진애 / 다산북스 / 2017 / 383P.
소장정보 | 중앙도서관 3층 인문사회자료관 단행본 [HDM 028.9082 김79D]　**추천사서** | 자료개발팀 **김경숙**

'자기다움'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

저자는 1994년 타임지가 선정한 '차세대 주목할 만한 인물 100인'에 한국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선정된 건축가이다. 18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거기에다 다양한 분야의 많은 저서를 펴낸 작가이기도 하다. 그의 샘솟는 에너지의 원천은 어릴 때부터 섭렵한 책이라고 한다.
이 책은 한 인간으로서, 또는 여성으로서 성장하는 데 자양분이 되는 책 이야기를 8가지 주제, 즉 자존감, 삶과 꿈, 섹스와 에로스, 여성의 연대감, 여성의 독특한 시각, 용기, '여신'이라는 원형, 여성성과 남성성을 담았다. 저자는 '흔들릴 때, 아쉬울 때, 허전할 때, 용기를 얻고 싶을 때, 내가 쓸 만하다고 느끼고 싶을 때, 나한테 괜찮다고 말하고 싶을 때, 무언가 더 큰 것을 바라고 싶을 때, 나보다 더 큰 그 무엇을 느끼고 싶을 때' 책 속에서 멘토이자 영감을 주는 존재들을 만난다고 한다. 그들의 열정과 고독, 여정, 그들이 스스로 정의했던 자신의 과제와 스스로 추구했던 과제가, 세속에서의 그들의 성공과 실패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나침반, 깃발, 지팡이가 되어줄 거라고 이야기한다. 책읽기와 성찰의 과정이 건강한 자기애를 가진 여성으로 성장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임을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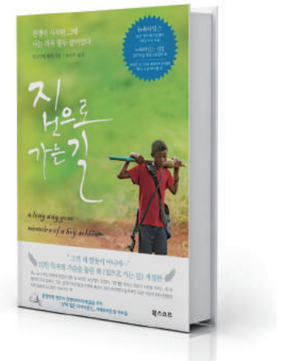


책과 책방의 미래

북쿠오카 / 펄북스 / 2016 / 403P.
소장정보 : 중앙도서관 3층 인문사회자료관 단행본 [HDM 070.5 북827ㅂ한]　**추천사서** : 자료개발팀 **정재훈**

책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매개체

도서 정가제의 전면 실시(2014년 11월)로 무분별했던 도서 가격 할인 경쟁이 불가능해졌다. 동네 중소형 서점, 독립 서점들은 일정한 도서가격으로 안정적인 매출을 예상했다. 하지만, 도서가격의 상승 효과로 인해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어 구매 행위가 점점 줄어들었다. 이는 다시 서점 시장의 위축으로 이어져버렸다.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서점은 서점대로 힘들어진 상황이 된 것이다. 이대로 지속된다면 서점과 출판업계가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마저 들게 된다.
이번에 소개하는 책은 2015년에 10주년을 맞이한 '북쿠오카(BOOKUOKA)'의 이벤트 중 하나로 이틀에 걸쳐 진행되었던 토론회에서 나눈 이야기를 수록한 것이다. '북쿠오카'는 후쿠오카의 출판사와 서점에서 일하는 회원들이 뜻을 모아 2006년부터 추진해 온 북 페스티벌의 명칭(BOOK+FUKUOKA)으로 매년 가을 한 달 동안 각종 이벤트를 개최하는데 후쿠오카 시내에 있는 '느티나무길'의 대로변에서 '한 상자 헌 책방'을 열거나, 서로 경쟁 상대인 후쿠오카 현 내의 수십 개 서점이 함께 '문고 페어'를 열거나, 인기 작가를 초대하여 토크쇼를 개최한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책'의 매력을 널리 퍼뜨리기 위해 출판과 서점업계의 사람들이 놀이와 같은 축제 형식으로 준비하는 것이다.



집으로 가는 길

이스마엘 베아 / 북스코프 / 2007 / 327P.
소장정보 : 중앙도서관 3층 인문사회자료관 단행본 [HDM 966.404 B365l한]　**추천사서** : 자료개발팀 **정영주**

먼 땅 시에라리온의 한 소년병에게서 삶의 용기를 얻다

2007년 출간되어 세계 주요 베스트셀러 리스트 상위에 빠른 속도로 랭크되며 화제를 불러 일으켰던 책으로 국내에서도 큰 사랑을 받았다.
이 책은 주인공이자 저자인 이스마엘 베아의 이야기를 통해 전쟁의 참상을 고발하고, 그 속에서 개인적으로 겪었던 내용을 자서전 형식으로 엮어 낸 논픽션이다. 개구쟁이 소년인 저자가 장기자랑 참여를 위해 친구들과 이웃 마을로 향하던 중 우연히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행복했던 삶이 어떻게 파괴되어 가는지의 참혹한 변화를 담고 있다. 살육의 현장에서 도망치던 평범한 어린 저자가 학살을 자행하는 무자비한 소년병을 거쳐 유엔에서 연설을 하는 인권 운동가까지 상상할 수 없고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극복하는 인간 정신의 힘을 보여준다.
바쁘고 고달픈 경쟁 속에서 다양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많은 이들이, 내전이라는 환경 속에서 살아남은 아프리카의 한 소년의 삶에서 위안과 용기를 얻기 바라며, 10년 전에 출간된 도서를 추천하고자 한다.

천국의 열쇠

아취볼드 조셉 크로닌 / 섬앤섬 / 2014 / 672P.
소장정보 : 중앙도서관 2층 문학예술자료관 단행본 [LDM 823.912 C947k한C]　**추천사서** : 자료조직팀 **장정순**

정도(正道)를 걷는 "나"

예수가 제자 베드로에게 "나는 너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라고 한 말에서 차용한 소설 "천국의 열쇠"는 영화로도 제작되어 그레고리 팩이 주연을 맡아 그의 대표작으로 꼽히고 있을 만큼 유명한 작품이다. 친구로서 같은 사제의 길이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안셀름 밀리 신부와 프랜시스 치점 신부를 통해 참다운 인간상이 무엇인지를 느끼게 한다. 성공과 명예를 추구하고 세상은 이런 것을 이룬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닮고 싶어 한다. 그렇다면 신앙인으로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어떻게 가늠할까? 감수성이 강하고 정직하며, 인내와 청빈과 용기로 일관하여 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사랑과 신념을 가지고 실천하며 용기있는 삶을 살아가는 프랜시스 치점 신부의 감동적인 삶이 이야기로 채워져 있다. 신과 인간, 구원과 삶에 대한 프랜시스 치점 신부의 순교자적 삶을 통해 정도(正道)를 걷는 "나"가 되길 바라며 이 책을 추천한다.
"천국을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천국은 여러분의 손바닥 안에 있다…천국은 어디에나 있을 수 있고, 실제로 어디에나 있다." - 본문 중 프랜시스 치점 신부의 말 -

이미지 출처 : 교보문고

"사서추천도서" 안내 | 부산대학교 도서관에서는 매주 도서관 홈페이지에 사서추천도서를 게시합니다. 자세한 추천 내용이 궁금하시면 도서관 홈페이지(https://lib.pusan.ac.kr)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유 인 권 물리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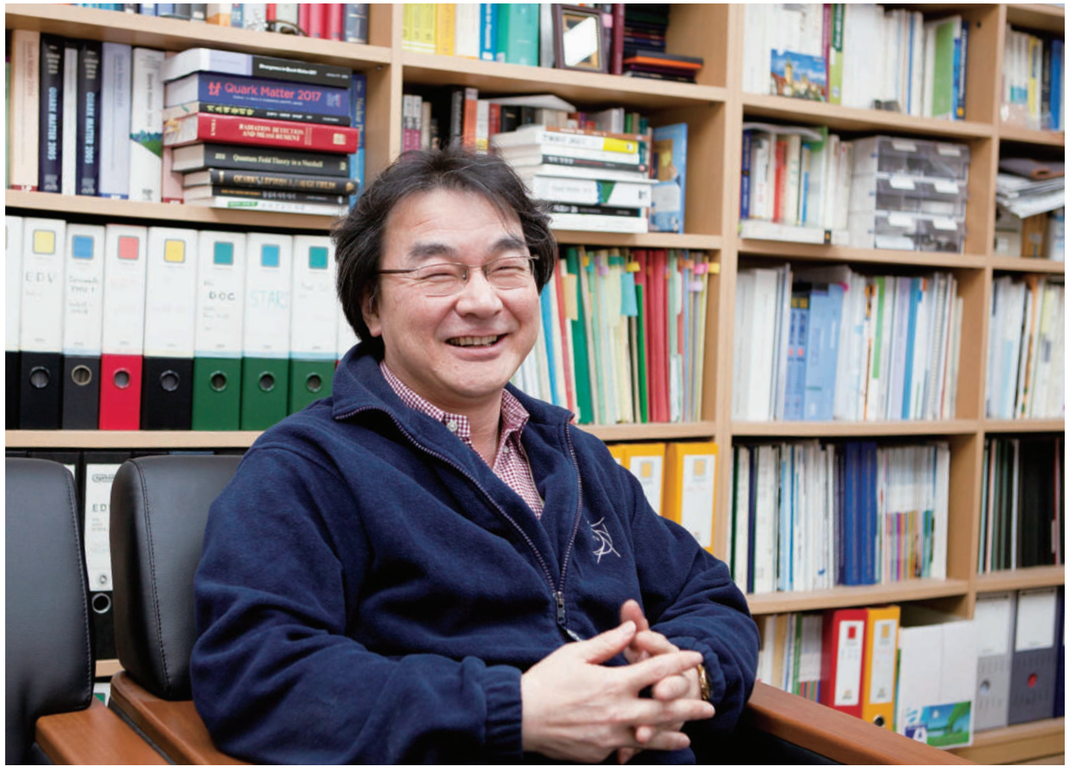
나의 서재를 공개합니다

내가 놓치지 말고, 앞으로도 나날이 더욱더 넓혀가고 깊어져야 할 나의 모든 화두들은 나의 다상량 (多商量) 이다. 그것들을 꿰뚫는 시작과 끝에는 결국 늘 '사람'이 있다.
나의 서재는 그래서 '사람'이다.

나에게 서재는 사람이다. 어려서부터 책을 무척 좋아했다. 특히 그 유명한 계몽사의 백과사전에서부터, 계림문고, 삼중당 문고판에 이르기까지, 책방에 들러 100권짜리 전질이 꽂혀있는 책장을 볼 때면, 황홀감에 젖기도 했다. 우리 집안 사정이 전질을 사달라고 조를 만큼 넉넉하지는 못했기에, 덕분에 나는 한권 한권씩 그 때 그 때의 취향대로 손에 끌리는 순서로 사서 읽고, 그 전질이 거의 다 채워지는 걸 보면서 한없이 부듯했다. 그렇게 어린 날의 나의 서재는 소박하지만 새 책이 아니라 손때가 묻은 하나씩의 책들로, 해가 잘 드는 베란다의 한 구석 작은 책장을 채워가는 것이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나는 고전과 동시에 고전음악에 심취했다. 누구라도 내게 무엇이 가장 소중하냐고 묻는다면, 주저 없이 내 손때가 고급지게 묻어있는 음반들과 문고판들이라고 답할 것이었다. 주로 단행본으로 압축된 고전들이긴 했어도, 그 속에는 훨씬 더 두껍고 빽빽하게 심지어 여러 권에 달하는 깊이와 묘사들이 숨어있다는 것, 그리고 고전음악의 끝도 모를 심연에 빠져드는 것은 참으로 황홀한 순간들이었다. 다독 (多讀), 다작 (多作), 다상량 (多商量). 많이 읽는 일과 글을 많이 쓰는 일, 그리고 많이 헤아리는 일은, 소중한 사색의 시간들을 매일 적어 내려가는 나의 일기장이었다. 물론 사춘기의 흠모하던 여학생들 이야기와 함께.
중고시절을 지내고, 별이 좋아 천문학과 (天文學科)에 들어갈 때만해도, 난 순진하게 하늘의 문학이라고만 생각했었다. 누구에게라도 전형적인 문과생이라고만 여겨졌던 내가 과학자가 될 줄은 나 자신도 꿈에도 몰랐다. 더군다나, 학문과 낭만에 대한 부푼 가슴을 안고 들어섰던 대학교정은 전쟁터였다. 학생들보다 더 많은 전경들, '정숙'이라고 적혀있는 강의실 옆에서는 학생들이 아닌 전투경찰들이 족구를 하고 있었고, 학생회관에서 처음으로 마주했던 광주학살의 사진들을 보고 구역질에 밥을 못 먹던 일. 그렇게 나의 서재는 이미 세상을 향하고 있었다. 어렸을 적 베란다 양지에 차곡차곡 조용히 쌓여있던 독서와 사색의 공간은, 이미 세상으로, 사람들로, 이 사회로, 거리로 향하고 있었다. 천문학을 전공하는 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가득찬 모순의 원인과 해결책을 갈구하는 내겐 역사와 철학, 경제학, 사회학, 한국사회의 사회구성체 논의, 해방전후의 한국 현대사, 자본론에 이르기까지, 나는 전공책보다 이런 책들에 훨씬 더 심취하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열렬한 기독교신자였던 내게 신이 왜 이런 세상을 가만 두고만 보고 계시는지에 대한 갈급함으로, 신학서적과 예정론에 이르기까지, 난 학교 사회관과 인문관 근처의 강의실로, 심지어 근방 신학대학교의 청강생에 이르기까지, 이미 나의 서재는 세상으로, 그리고 온갖 강의실과 모든 거리로 넓혀져만 갔다. 이 넓은 세상에서 도대체 난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할까라는 고뇌와 분노, 열정에 뜨거웠던 젊은 날들.
뜨거웠던 젊은 날의 조국을 뒤로 하고 도망치듯 떠났던 먼 이국 땅 독일에서의 12년. 그 독일의 고적한 거리와 하늘에는, 내가 어려서 온갖 서양문학에서 상상해왔던 그것들이 거기 있었다. 새로운 언어와 생각들, 학문과 인간, 자연에 대한 열정들과 호기심들로 넘쳐나던 독일 마부르크의 대학가. 접시닦이, 호텔 밤 근무의 격무에서 벗어나 코피 닦아가며 정신없이 향하던 강의실, 맥주와 수학문제들, 물리문제, 실험에 대한 고민들로 독일 친구들과 밤을 새우던 다락방 기숙사. 나의 서재는 마침내 좁은 시공간의 한국을 벗어나 유럽으로 세계로 훨훨 날아오르고 있었다. 멀리 고국에서 들려오던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했던 그 많은 소식들을 들으며 꿈에도 그리워하던 고국의 가을 하늘. 석·박사과정을 거치면서 독일의 한 도시를 벗어나 유럽의 여러 도시들, 특히 말로만 듣고 상상 했던 스위스 제네바의 인류가 만든 가장 큰 가속기가 있는 유럽핵입자연구소 (CERN) 에 첫 출장을 갔던 날 밤, 나는 이대로 죽어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생각을 했다. 그렇게 감격에 차서 마주했던 그 연구소의 실험실에서, 연구실에서 며칠 밤을 새면서 실험을 하고, 검출기의 수천가닥의 케이블을 조립하고, 말로만 듣던 유닉스와 리눅스를 기반으로 프로그래밍을 하고,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세계적인 대선배 물리학자들이 노벨상을 이야기하는 틈새로 내다보던 프로의 세계. 나도 모르는 새 나도 그렇게 시나브로 프로가 됐고, 나의 서재는 반 평도 안 되던 소박한 베란다의 작은 책장에서부터 시작해, 음악으로 세상으로, 독재치하의 분단국가 우리나라를 넘어 독일로, 다닥다닥 붙어있는 유럽 국가들을 넘어 인류가 만든 가장 큰 가속기의 실험실로, 그 실험실에서 다시 우주최초의 입자들을 찾는 미지의 세계로, 그렇게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멀고도 깊은 우주의 시공간으로 넓혀졌다.

그리고 마침내 나의 할 일을 찾아, 생전 처음 안정적인 생활의 터를 잡게 된 부산. 물리학, 그것도 우주 최초를 연구하는 핵물리학을 가르치는 대학교수가 되었다. 먼 길을 돌아왔지만, 그렇게도



그리던 내 고국에서 찾게 된 나의 일, 연구, 학생들과 동료 교수들. 대학시절 이후, 유학생활과 이곳 새로운 고향 부산에 이르기까지, 동네에서 동네로, 도시에서 도시로, 나라에서 나라로 열 번 남짓의 이사를 다니는 동안, 넘쳐나던 손때 묻은 책들, 나의 소중한 음반들은 하나 둘 소실되었다. 여전히 책들과 논문, 폴더와 문서들로 넘쳐나는 책장이지만, 나는 그래서 결국 드디어 물리적인 책들과 제한적인 시공간을 뜻했던 나의 서재는 자유를 얻었다.
난 더 이상, 문자로 국한된 것만 책이라 생각지 않는다. 나날이 나를 거쳐 가는 많은 음악과 학생들, 일들, 사람들. 그들로부터 매 순간마다 내게 여전히 찾아드는 수많은 화두들과 고민꺼리들, 결국은 다시 향하게 될 '사람'들로 귀결되는 나의 '서재'.

현재의 나는, 매순간 경험하는 모든 것들, 사람들, 일들이 내게 다독 (多讀) 이며, 그것을 순간순간 잘 포착하고, 연구의 결과를 내고 칼럼과 논문을 쓰고, 토론하는 모든 '상호작용'이 내겐 다작 (多作) 이며, 이 모든 것들로부터 내가 놓치지 말고, 앞으로도 나날이 더욱더 넓혀가고 깊어져야 할 나의 모든 화두들은 나의 다상량 (多商量) 이다. 그것들을 꿰뚫는 시작과 끝에는 결국 늘 '사람'이 있다.
나의 서재는 그래서 '사람'이다.

인간은 노력하는 동안엔,
늘 헤매게 마련이다.
(Es irrt der Mensch, solange er strebt. = 헤매지 않는 사람은 노력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 괴테 (J. W. Goethe) 의 파우스트 (Faust) 에서

[교수의 서재]에서 교수님들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교수의 서재]는 분야별(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기술과학 등) 우리학교 교수님들의 서재를 통해 그 분의 독서법과 독서세계를 경험해보고, 서가에 꽂힌 책도 함께 만나보고자 기획된 코너입니다. 교수님에게 서재는 어떤 공간인지, 그리고 교수님의 독서와 인생이야기를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교수의 서재]에 칼럼을 써주신 교수님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함께 드립니다.
분량 200자 원고지 20매 이내 (A4 2장 정도) **문의** 도서관 기획홍보팀 051-510-1810

도서관은 재미가 없다? 아니거든? 재밌거든!!

책, 책, 책, 책만 읽는 도서관은 가라!!

봄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3월~4월, 부산대 도서관에서는 이용자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되었다.
그중 신입생 여러분을 위한 "어서와~ 우리 도서관은 처음이지" 와 "2018년도 전자자료이용박람회" 이벤트에 참여한 2명의 학생과 인터뷰를 나누어 보았다.

전자자료이용박람회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헌정보학과 12학번 손덕찬 입니다

전자자료이용박람회는 어떤 계기로 참여하게 되었나요?
늘 들락거리는 도서관 1층에 있어서 들리기 편하기도 했고, 평소에 관심 있었던 Lexis Advance, Westlaw, Wiley Online Library, 로앤비 같은 법학 DB의 업체들이 대부분 참석해서 종류별로 들러보려고 참석했습니다. 경품도 좀 기대됐고요.

전자자료이용박람회를 듣고 나서 어떤 점이 도움이 되셨나요?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피상적인 데이터베이스 설명이나 간단한 사용법 정도로 그치지 않고 자세한 사용법과 안내, 해당 사이트의 이용 매뉴얼 같은 데는 없었던 팁 같은 것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특히 박람회 정보검색 이벤트의 정답과 연계해서 전자 자료 활용을 자연스럽게 체험해볼 수 있게 구성해두어서 이 점도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각종 이벤트를 통해 나눠준 풍성한 경품도 좋았습니다. 장소가 조금 협소했지만 주 참가자인 학생들의 접근성 등을 생각해봤을 때 최선이었던 것 같아서 특별히 아쉬웠던 점은 없습니다.

그 밖에 도서관 서비스에 대해 바라는 점이 있다면?
특별히 추가적으로 바라는 것은 없고, 도서관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가 정말 다양한데, 사람들이 그 서비스들을 몰라서 못 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특히 학과별 학술정보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구색만 갖춰둔 다른 학교들이랑 다르게 매 학기 수업자료들, 관련 동영상 강의들, 저널/DB 링크 등도 잘 구비되어 있고, Ask a Librarian 같은 고급 서비스까지 잘 되어있는데 광고가 부족해서인지 이용자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많이 들어오고 있는 e-Book 같은 경우에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보는 사람만 많이 보는 느낌이 있는데 그 부분도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알려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전자자료이용박람회 포스터 |

| 어서와 우리 도서관은 처음이지 포스터 |

어서와 우리 도서관은 처음이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영어교육과 18학번 강예지라고 합니다.

도서관 이용자 이벤트는 어떤 계기로 참여하게 되었나요?
도서관 이용 교육을 받은 후 소감을 작성해서 제출을 했는데, 그 소감문을 통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느꼈던 점이 있을까요?
아직 입학한 지 오래 지나지 않아서 도서관을 많이 이용한 편은 아니지만 시험기간 때나 필요한 서적을 찾을 때 도서관을 이용하면 학생들을 배려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일반 도서관에서는 찾기 힘든 서적들도 많이 배치해놓고 있었고,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앙도서관과 새벽벌도서관에 그룹 스터디룸이 있어 조별 과제를 하거나 동기들과 같이 공부할 때 꼭 카페를 가지 않아도 그룹 스터디룸에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대학교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많은 것을 고민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도서관 이용자 이벤트에 참여하면서 어떤 점이 좋았나요?
우선 도서관 이용 교육을 듣고 작성한 소감문이 당첨되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이벤트를 통해 제가 도서관을 어떻게 이용했는지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가 있다면?
중간고사 때 전공 공부를 같이 하려고 그룹 스터디룸을 예약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 오류가 떠서 다른 팀과 동시간대에 예약이 되었습니다. 결국 도서관 측에 전화해서 다른 스터디룸으로 대체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스터디룸을 빌려 동기들과 같이 즐겁게 공부한 기억이 나네요. 처음에 중앙도서관 스터디룸을 쓰고 그다음으로 새벽벌도서관 스터디룸을 썼는데 중앙도서관과 달리 새벽벌도서관의 그룹 스터디룸 규모가 더 커서 감탄했습니다.

그 밖에 도서관 서비스에 대해 바라는 점이 있다면?
최근에 소설책이 영화로 많이 각본되고 있는데, 소설책을 읽게 한 후 영화를 상영하여 보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설을 기반으로 한 영화이지만 두 작품의 다른 점은 무엇인지 찾아보고 어떤 것이 더 좋은지, 또는 보완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자유롭게 얘기하는 시간을 가진다면 앞으로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볼 때 더 넓은 시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남과 북 손을 잡다.

2018년 4월 27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 2000년(김대중 대통령)과 2007년(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이었다.
이번에 남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선언, 종전 선언, 회담 정례화, 남북공동사무연락사무소 설치, 이산가족 상봉 그리고 철도 도로 연결 등의 내용이 담겼다.
향후 종전 선언, 평화협정 등을 진행함으로써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오고, 다양한 민간교류와 협력, 남과 북의 상호 발전 등의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이야말로 평화 통일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변화의 시점에서 우리의 남북 관계를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자료를 소개하고자 한다.

멀티미디어

여덟 발의 총성! 진실은 그곳에 있다.

공동경비구역 JSA

영화 속 UN사령부 경비대대 소속 이수혁 병장(이병헌)은 비무장지대를 수색하던 중 지뢰를 밟지만 북한군 정우진(신하균)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지게 된다. 서로를 당연히 적이라고만 여겼던 이들은 그 사건을 계기로 판문점에서 얼굴을 마주하며 친근함을 느끼기 시작한다. 이후 돌멩이에 쪽지를 묶어 던지거나 담배를 교환하는 등 소소한 교류를 시작으로 초소까지 왕래하기에 이른다. 언제 다시 적이 될지 모르는 대립 상황에서 정(情)이 먼저였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이 발각되자 서로에게 총을 겨누고, 누가 누구에게 총을 겨눴는지 추적하게 된다.
이 영화는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 내 JSA에서 벌어진 남북 군인 간의 총격 사건을 추리극 형태로 풀어내며, 분단의 아픔을 새로운 시각에서 보여준다. 분단을 소재로 한 기존 작품들과는 다르게 영화에서는 북한을 적으로 묘사하기보다 우정을 나눌 수 있는 대상으로 그렸다. 사상이나 이념의 갈등이 아닌 개인과 개인의 갈등을 중심으로 분단을 이야기한 것이다.

소장정보
박찬욱 감독. CineLine. 2009
중앙도서관 1층 인포메이션커먼스
NVD 791.430951 659

북한 1호가 남한으로 내려왔다!

강철비

쿠데타 발생 직후 최정예요원 '엄철우'(정우성)는 치명상을 입은 북한 1호와 함께 남한으로 내려온다. 그 사이 북한은 대한민국과 미국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남한은 계엄령을 선포한다. 이때 북한 1호가 남한으로 내려왔다는 정보를 입수한 외교안보수석 '곽철우'(곽도원)는 전쟁을 막기 위해 이들에게 긴밀한 접근을 시도한다. 핵전쟁으로 번질 일촉즉발의 상황을 앞두고 두 명의 철우는 서로 협력하기로 한다.
영화는 남과 북 두 철우의 브로맨스는 물론 국내외 정치상황, 세계 각국의 이해관계 등 다양한 볼거리, 생각거리를 제공한다. 특히 "분단국 국민들은 분단 자체보다 정치적 이득을 위해 분단을 이용하는 자들에 의해 더 고통받는다"는 곽철우의 대사는 많은 시사점을 안겨준다.

정보
양우석 감독. 2017
DVD 발매 예정

참고자료
2018 남북정상회담 홈페이지
네이버 영화
교보문고

도 서

남북관계의 오늘을 만든 7시대의 역사를 되돌아보다!

70년의 대화
새로 읽는 남북관계사

광복 직후 분단을 겪고 두 개의 정부가 수립된 무렵부터 오늘날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대화를 재개하기까지, 남북관계의 결정적 장면을 속도감 있게 그리는 한편 관계의 정곡을 파고든 『70년의 대화』. 1950년대 정전협정부터 북핵 문제에 이르는 남북관계의 지난날을 수동이 아닌 능동의 지혜로, 좁은 눈이 아닌 넓은 눈으로, 단절이 아닌 역사의 지속으로 조망한다.
돌이켜볼 때 남북관계는 대결하다가도 협력하고 전쟁위기까지 갔다가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며 가다 서다를 반복해왔고, 그 사이사이를 '대화'가 이어오고 있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노태우, 김영삼, 김대중·노무현, 이명박·박근혜 정부까지 7개의 시대, 7가지 대북정책을 통해 오늘날 남북관계를 들여다본다. 국제정치 질서와 국내정치 상황에 따라 대결과 악화, 접촉과 협력을 반복해온 지난 정부의 대북정책을 남북관계의 성격에 따라 시대별로 조망하면서 그날그날의 긴박한 뉴스를 정치적으로 조성된 불안이나 공포와 거리를 두고 꿰뚫는 눈을 얻게 해준다. 저자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실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소장정보
김연철 지음. 창비. 2018
중앙도서관 3층 인문사회자료관
HDM 320.951 김64ㅊA

세계적인 북한 전문가 박한식, 시대의 질문에 답하다

선을 넘어 생각한다
남과 북을 갈라놓는 12가지 편견에 관하여

북한은 왜 핵을 개발하고 군사 도발을 하는가?
북한 체제는 과연 붕괴할 것인가?
북한은 1인 독재 체제인가?
김정은과 트럼프는 무슨 생각을 하는가?
대북 지원은 북한의 핵 개발을 도왔는가?
중국과 북한은 어떤 관계인가?
북한 비핵화는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왜 통일을 해야 하는가? 통일은 가능한가?

세계적인 평화학자이자 지미 카터와 빌 클린턴의 방북을 중재했던 북한 전문가 박한식이 북한과 남북관계에 대한 질문들에 답한다. 그는 이 질문들에 답하는 과정에서 남북대화를 방해하고 잘못된 대북정책으로 이어지는 편견들을 극복해 나간다. 또한 북미관계의 비공식 통로 역할을 했던 경험들을 살려 북한의 여러 말과 행동들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북한과 교류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와 같은 실용적인 지침들 뿐 아니라 평화 통일을 위한 여러 구체적 방안들도 제안한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북한 문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추게 될 것이다.

소장정보
박한식, 강국진 지음. 부키. 2018
중앙도서관 3층 인문사회자료관
HDM 320.951 박91ㅅ

통일 이후의 대한민국, 그 절망의 풍경!

국가의 사생활

통일 이후의 대한민국을 그린 이응준의 장편소설 『국가의 사생활』. 통일되었지만 분단된 두 세계의 갈등은 여전하고, 그 가운데 온갖 사회악이 난무하는 통일대한민국. 작가는 특유의 치밀한 분석력을 바탕으로 '어두운 신세계'의 풍경을 생생하게 묘사하였다. 다양한 책과 논문을 참조하여 완성도를 높이고, 정교한 복선과 빠른 전개로 긴장감을 놓지 않는다.
대한민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흡수통일한 이후 5년의 시간이 흐른다. 2016년의 서울은 양심을 잃은 부패 경찰의 횡포, 이북 출신 폭력 조직의 난립, 주민등록조차 되지 않은 대포 인간을 악용한 각종 범죄, 신종 마약의 유통, 급식소에 줄을 선 통일 빈민의 증가 등으로 혼란스럽다. 이렇듯 황폐한 통일 대한민국의 하늘 아래, 살인 사건이 벌어진다.
독립운동가 이장곤의 손자이자 인민군의 영웅이었던 리강은 이북 출신 폭력 조직 '대동강'의 동료 림병모의 죽음을 파헤치기 시작하면서 거대한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

소장정보
이응준 지음. 민음사. 2009
중앙도서관 2층 문학예술자료관
LDM 811.36 이68ㄱA

부산대학교 단과대학별 대출 순위 BEST 5

인문 • 사회 • 예술계열

누군가의 생각이 궁금할 때는 그들의 독서목록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한다. 우리 대학 학생들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어떤 생각을 하며, 전공별 학생들의 생각은 얼마나 다양할까?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단과대학별 2017년 대출순위 BEST 5를 알아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인문계열 단과대학을, 다음 호에서는 이공계열 단과대학의 대출순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인문대학

1위	(박시백의)조선왕조실록	박시백 / 휴머니스트 / 2008
2위	土地(토지)	박경리 / 나남 / 2002
3위	정글만리	조정래 / 해냄 / 2013
4위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도스토예프스키 / 민음사 / 2007
5위	더하프	조은정 / 에스티앤북스 / 2016

사회과학대학

1위	土地(토지)	박경리 / 나남 / 2002
2위	三國志	나관중 지음 / 황석영 옮김 / 창작과 비평사 / 2003
3위	(박시백의)조선왕조실록	박시백 / 휴머니스트 / 2008
4위	고구려	김진명 / 새움 / 2011
5위	(새로 만든)먼나라 이웃나라	이원복 / 김영사 / 2012

법과대학

1위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법리와도입가능성	한국법제연구원 / 한국법제연구원 / 2007
2위	환경법	강현호 / 新論社 / 2011
3위	특수불법행위법연구	사법연수원 / 사법연수원/ 2010
4위	행정법원론	홍정선 / 박영사 / 2017
5위	환경법	박균성 / 박영사 / 2013

사범대학

1위	(박시백의)조선왕조실록	박시백 / 휴머니스트 / 2008
2위	(새로 만든)먼나라 이웃나라	이원복 / 김영사 / 2012
3위	아리랑	조정래 / 해냄 / 19944
4위	정글만리	조정래 / 해냄 / 2013
5위	학교는 죽었다.	Reimer, Everett / 한마당 / 1997

경영대학

1위	고구려	김진명 / 새움 / 2011
2위	장길산	황석영 / 창작과 비평사 / 2004
3위	한강	조정래 / 해냄 / 2007
4위	太白山脈	조정래 / 해냄 / 2002
5위	三國志	나관중 지음 / 황석영 옮김 / 창작과 비평사 / 2003

경제통상대학

1위	土地(토지)	박경리 / 나남 / 2002
2위	三國志	나관중 지음 / 황석영 옮김 / 창작과 비평사 / 2003
3위	(박시백의)조선왕조실록	박시백 / 휴머니스트 / 2008
4위	고구려	김진명 / 새움 / 2011
5위	(새로 만든)먼나라 이웃나라	이원복 / 김영사 / 2012

예술대학

1위	(새로 만든)먼나라 이웃나라	이원복 / 김영사 / 2012
2위	제3인류	베르나르 베르베르 / 열린책들 / 2013
3위	해리포터 시리즈	Rowling, J. K / 문학수첩 / 2000
4위	三國志	나관중 지음 / 황석영 옮김 / 창작과 비평사 / 2003
5위	노르웨이의 숲	무라카미 하루키 / 민음사 / 2013

대하소설 및 고전 스테디셀러 강세 「태백산맥」, 「토지」, 「장길산」, 「三國志」

효원인들은 대체적으로 박경리의 「토지」, 조정래의 「태백산맥」, 황석영의 「장길산」 등 대하소설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고전의 가치에 대해 주목함으로써 대하 역사 소설이나 역사물처럼 긴 시간의 독서를 요하는 소설류가 인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소장처 : 중앙도서관 [HDM 951.05 박59W]

소장처 : 중앙도서관 LDM [811.36 박14ㅌ]

소장처 : 중앙도서관 HDM 909 0|67ㅁ2

소장처 : 중앙도서관 LDM 811.36 김79ㄱB

소장처 : 법학도서관 BDM 346.03 한 17ㅈB

이미지 출처 : 교보문고

우리의 역사에 열광하다.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

위 통계를 살펴보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된 조선왕조실록을 쉽게 풀어 쓴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이 단연코 눈에 띈다. 이 책은 자칫 무겁고 지루할 수도 있는 한국사 내용을 쉽게 풀어내어 가볍게 읽기 좋은 점과 당시 시대에 대한 작가의 의견이 곁들여져 있다는 점에서 도서 대출 순위 상위권에 랭크되었다.

우리 시대의 자화상, 대학생의 책읽기

위 통계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학생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고 문제에 관해 다양한 고민을 하게 만드는 도서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 또 단과대학별로 한 두 권을 제외하고 선호하는 도서가 거의 비슷하다. 고전류가 강세를 보이며, 한국의 역사와 관련된 김진명의 소설이 자주 랭크되어 있는 것이 눈에 띈다. (새로만든)먼나라 이웃나라가 다수의 단과대학에서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세계 흐름에 대해 알고자 하는 효원인들의 열망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위의 통계는 수험서를 제외한 통계이다. 실제 통계를 살펴보면 각 단과대학 대출 순위의 대부분이 수험서로 가득 채워져 있다. 그만큼 학생들이 진로와 취업으로 고민하고 있으며, 자기계발이라는 현실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실용서 위주로 독서를 하고 있다.
이처럼 도서 대출 순위는 시대상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라고도 할 수 있다. 불확실한 미래, 취업에 대한 불안정으로 인하여 수험서로 가득 채워진 도서 대출 통계가 아닌, 진정한 지(知)를 탐하는 다양한 분야의 도서 대출 통계를 볼 수 있는 시대가 왔으면 한다.

PNUL BEST

우리동네 작은도서관
금정구의 작은도서관 탐방기

작은도서관은…
'정숙'이란 단어 아래 정자세로 앉아
숨죽이며 책을 읽는 대신
누워서 뒹굴뒹굴 깔깔거리며 책을 읽는 곳.
책 그자체가 장난감이 되고
책 속 등장인물을 불러내 책을 깨어나게 하는 곳.
큰 맘 먹고 등산하듯 올라가야 하는
도서관이 아닌 슬리퍼 신고 편한 옷차림으로
친구 집 놀러가듯 갈 수 있는 가까운 곳.
그리고 책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
책을 이야기하고 삶을 이야기하고
삶을 나누는 곳!

「작은도서관이 아름답다」

금정구 내 작은도서관 분포 현황

이미지 출처 : 금정도서관 홈페이지

큰 맘 먹고 등산하듯 올라가야 하는 도서관이 아닌 슬리퍼 신고 편한 옷차림으로 친구 집 놀러가듯 갈 수 있는 가까운 곳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2년 제정된 작은도서관 진흥법에서는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 자료기준에 미달하는 도서관을 작은도서관이라 정의하고 있다. 예전 우리 동네에서 한번은 봄직한 마을문고가 좀 더 체계화되고 발전되어 지금의 작은도서관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전국의 작은도서관을 한번에 찾아볼 수 있는 작은도서관 포털사이트(www.smalllibrary.org)에는 현재 전국 6,456개의 도서관이 등록되어 있다. 그 중 부산에는 379개, 우리 금정구에는 총 22개의 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다. 작은도서관은 운영 주체가 공립과 사립으로 나눌 수 있는데, 현재 금정구에서는 공립 4곳, 사립 18곳이 운영되고 있다. 공립으로 운영되는 곳은 모기관에서 인적, 물적 지원이 이루어져서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운영되는 반면, 사립 작은도서관들은 개인이나 사단법인 등에서 후원을 받거나 사비로 운영되는 곳이 많아 지속적으로 도서관을 운영하기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공립과 사립 모두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아직은 열악한 우리 동네의 작은 도서관들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대학 구성원들에게 작은도서관에 대한 인식의 문턱을 낮추는 계기를 마련하여 이용은 물론이고, 우리 지역 작은도서관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지 알아보고 소개하기 위하여 금정구 내 작은도서관 3곳을 찾아가보았다.

미리내 작은도서관 / 공립 / 6,284권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강로347번길 32(미리내행복센터) (장전동) / 051-512-3584
이용시간 : 화~금 10:00~19:00, 토,일 10:00~18:00

우리 학교 북문 근처에 위치한 미리내 작은도서관은 외관부터 특이한 버스 모양의 미리내 행복센터 건물 내 1층에 있다. 2014년 금정구청에서 설립하여 금정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금정구에서 가장 활발히 운영되는 작은도서관 중의 하나로 하루에 150권 내외로 대출이 된다고 한다. 금정도서관에서 책을 구입하여 제공하고 오래된 책들은 다시 금정도서관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신간 도서들이 많이 비치되어 있었다. 사서와 자원봉사자가 교대로 근무하고 금정구 주민이라면 누구든 이용할 수 있으며 1인당 3권까지 2주 동안 대출할 수 있다.

금샘마을 작은도서관 / 사립 / 8,682권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강로 673, (남산동) 2층 / 051-512-1742 **이용시간 : 월~금 10:00~17:00**

사단법인 금샘마을공동체에서 운영중인 도서관으로 2008년 남산동 작은 골목에서 개관하였다가 2011년 지금의 도로옆 건물 2층으로 옮겼다. 지역 주민들의 기증도서와 1년에 100만원 내외로 금정도서관에서 지원되는 지원금으로 구입한 도서로 자료가 구성되어 있고, 지역주민 약 2000명의 금샘마을공동체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다양한 도서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프로그램 별로 동아리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책으로 빽빽하게 둘러싸인 공간의 한 쪽엔 아이들이 좋아할만한 다락방도 예쁘게 꾸며져 있었다. 어린이 도서가 있는 방 옆에는 어른들이 읽는 도서들이 있는 작은 방도 따로 마련되어 있었다. 사서직원이 상주하고 있으며 거주지에 상관없이 회원등록만 하면 누구든 1인당 3권까지 2주 동안 대출할 수 있다. 정기적인 후원금을 내면 1인당 6권까지 대출할 수 있다.

글누리 작은도서관 / 사립 / 8,705권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로 135-1, (장전동) 222-48 / 051-581-6996 **이용시간 : 월~금 11:00~20:00**

글누리지역아동센터 원장님 개인이 1996년 해운대에 설립하여 운영하시던 작은도서관을 2006년 지금의 자리로 옮겨 개관한 글누리 작은도서관은 장전역 근처 도로옆 건물의 지하1층에 위치해 있다. 원장님 개인의 사비를 털어 마련한 이 도서관은 연 100만원 내외의 금정도서관 지원금으로 구입한 도서들과 기증받은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시작가 출신의 관장님이 보유하신 동시집들이 많이 비치되어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재는 인력부족으로 관외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상주하는 사서가 없고, 자원봉사자로만 운영되는데 현재는 정기적으로 오시는 자원봉사자가 없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는 아동센터의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책을 읽는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아이들이 책을 통해 심성이 고운 어른으로 커나갈 때 보람을 느낀다는 관장님은 단 두 시간만이라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봉사해줄 젊은 자원봉사자들을 절실하게 원하고 계셨다. 이 글을 보고 관심 있는 대학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가 글누리 작은도서관이 정상화 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래본다.

이번 탐방을 통해 본 우리 동네 작은도서관은 규모는 작지만 우리의 생활공간 가까이에서 책을 매개로 주민들과 밀접하게 관계하고 있는 마을공동체의 거점이자, 시험공부를 위한 도서관이 아닌 남녀노소 모두 거리낌 없이 찾아 책을 읽고 빌릴 수 있는 문턱이 낮은 도서관이었다. 그리고 책만 빌리는 도서관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 멀리 가지 않고도 내 삶터에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지역주민들의 후원과 참여 없이는 운영이 어려운 열악한 현실 속에서도 꿋꿋이 지역 주민들의 책고픔, 사람 고픔을 채워주고 있는 작은 도서관이 더 많은 사랑과 관심으로 잘 운영되기를 바라본다.

Special Focus

2018년도 도서관 이용자 대상 이벤트 개최

도서관은 2018년도 신학기를 맞이하여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릴레이 이벤트를 진행하였다.

제1탄 "우리 도서관은 처음이지?"는 도서 대출, 열람실 이용 등 정해진 순번에 도서관 서비스를 처음 이용하는 신입생 총 36명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한편, 도서관 이용 교육을 듣고 작성한 참여 후기 중 우수작을 선정, 총 69명에게 상품권을 증정하는 이벤트였으며 신입생들의 빠른 대학생활 적응을 돕고 도서관을 활용한 문화생활을 알리고자 진행하였다.

제2탄 "고마워! 우리 도서관"은 도서관 이용 중 유용했던 서비스나 도서관 이용 노하우, 도서관과 관련된 다양한 에피소드 등 도서관 이용 체험담을 적어 응모하면 우수작을 선정하여 상품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로 이용자들의 참여를 통한 대학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고,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였다.

전자자료이용박람회 개최

도서관은 지난 4월 4일 새벽벌도서관 1층 로비에서 학생 및 교직원의 정보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2018년도 도서관 전자자료이용박람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전자자료이용박람회는 e-book, 오디오북, 어학/IT이러닝 강좌, 국내 학회지 DB 등 총 22개의 학술전자정보업체에서 참가해 전자자료 서비스를 안내했고 체험부스를 방문한 1,184여 명의 학생 및 교직원들의 큰 호응을

받으며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

한편 올해로 5회를 맞이하는 도서관 전자자료 이용박람회는 도서관 활용 및 전자자료 이용 활성화를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참여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경품 추첨을 통해 자전거, 스피커, 상품권 등 상품을 지급하였다.

"제 1회 김진재 SF 어워드" 개최

부산대학교는 지난 2018년도 1월 12일(금) 김세연 국회의원 · DRB((주)동일고무벨트, DRB동일(주))와 과학 및 SF 창작문화사업을 위한 상호업무협약을 부산 금정구 금사동에 위치한 ㈜DRB동일 Campus D 내 Base Camp에서 체결하였다. 이 협약과 관련하여, 부산대학교 도서관은 DRB와의 공동주최로 전국 청소년 및 성인(대학생 포함 만27세 이하)들을 대상으로 한 "제 1회 김진재 SF 공모전"을 7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공모분야는 문학부분(시나리오, 시놉시스, 단편소설, 에세이), 그림부분(웹툰, 만화단편), 영상부분(UCC, 광고, 단편영화) 총 3개 분야이다. 참여 방법은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 및 작품파일을 제출하면 된다.

시상은 △대상(청소년 1작품 100만원, 성인 1작품 200만원), △최우수상(청소년 1작품 50만원, 성인 1작품 100만원), △우수상(청소년 1작품 30만원, 성인 1작품 50만원)이며,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이밖에, "김진재 SF 어워드 공모전"과 관련하여 SF와 관련된 강연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부산대학교, DRB Campus D, 국립부산과학관 등에서 마련되며, 공모전 홈페이지는 7월중 개설 예정이다.

문의 | 도서관 기획홍보팀 **051-510-1810**

2018년도 세상의 모든 시학 개최

도서관은 "내 안의 시를 세상으로 보내다"라는 주제로 2018년도 세상의 모든 시학 강좌를 학기 중 매주 마지막 주 금요일 새벽벌도서관 1층 오디토리움에서 개최한다. Poetica in PNU와 부산대학교 도서관이 공동 주최, 주관하는 세상의 모든 시학 강좌는 마음의 시를 통해 세상과 만나 소통을 이루고, 그 아름다움을 공유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하였다.

사전 접수 신청을 통해 부산대학교 학생 및 교직원, 부산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지난 3월 첫 번째 강연 "무엇이 성공인가 - 랄프 왈도 에머슨"(부산대학교 물리학과 유인권 교수)의 강연을 시작으로 2018년도 학기 중 총 7회 강좌가 진행할 예정이다.

자료 기증

인문대학 한문학과 이병혁 명예교수

고문헌 자료 141점 기증

인문대학 한문학과를 정년퇴임 하신 이병혁 명예교수가 고문헌자료 141점을 기증(2018. 4. 24.)하였다. 2007년 1월 6,913점, 2016년 3월 115점을 기증하신 이후 세 번째 기증이다.

이번에 기증된 자료는 병학지남(兵學指南 등 고서 105책과 시축(詩軸), 단자(單子) 등의 고문서 36점으로 조선시대 문학 학습 및 사회상을 연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故 벽사(碧史) 이우성 선생

유품 기증

한국고전학과 역사학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故 벽사(碧史) 이우성 성균관대 명예교수의 유품(양복, 한복, 도장, 문방사우 등)이 지난 2018. 3. 23. 기증되었다. 2015년 5월 3,253책, 2016년 4월 10,464책, 2017년 8월 약 1,000책을 기증한 이후 4번째 기증이다. 이번에 기증된 유품은 이우성 선생이 생전에 사용하시던 다양한 물품들로 故 벽사(碧史) 이우성 선생의 정신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품들은 부산대학교 점필재연구소와 논의 후, 전시공간을 마련하여 진열·관리될 예정이다.

故 벽사(碧史) 이우성 선생은 밀양에 민족교육기관인 '화산의숙'(華山義塾, 1899)을 건립해 지역의 후진교육에 평생 노력한 항재(恒齋) 이익구 선생의 증손자이자 '성호집'(星湖集)을 간행해 조선후기 실학을 재조명하는 계기를 만든 성헌(省軒) 이병희 선생의 손자이다. 경남 밀양 출신인 고인은 어린 시절 받은 한학 교육을 바탕으로 문사철(文史哲)을 아우르는 다양한 학문을 섭렵해 '한국학의 태두', '마지막 유림' 등으로 불렸다.

기증관련문의

도서관 자료개발팀 051-510-7600 **도서관 고문헌자료실** 051-510-1824 (고문헌 관련) **도서관 행정지원팀** 051-510-1830 (예술작품 관련)

여러분께서 기증해주시는 자료는 모두의 자산이 되며, 도서관 이용자들에게는 꿈과 희망이 됩니다.